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천주교신자노동자 > : 그목적과수 단

익명

익명
< 천주교신자노동자 > : 그목적과수단
2008

2009년 12월 7일에 www.catholicworker.org에서재출간

kr.theanarchistlibrary.org

2008

《천주교신자노동자》 운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관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원천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히브리어와 희랍어 경전이며 또한 신자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영감과 함께 “성스러운 이 뛰어난 신자들, 당신의 변함 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다. (성인들과 성녀들을 위한 성찬기도문서문)

이 목적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 운동의 창시자 도로시 데이 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가 만든 세상보다 더 편안한 세상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선택하기 더 쉬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피터 모린을 떠올린다.

* * *

우리가 흔히 (부의 생산과 통제 방법론에 따라) 자본주의적이라 불리는 우리의 사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사회의 부르주아들을 바라볼 때, 그 물질적인 이득의 확보에 대한 만연한 관심에 따라, 그리고 우월함과 평범함을 나누는 것에 대한 강조에 따라, 우리는 그것이 하느님의 정의와 거리가 멀다고 바라본다.

● **경제적으로**, 사유 재산적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는 모두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가져온다. 이 운동기가 결정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다른 이의 땀으로 살아간다. 그와중에 권력이 없는 이들은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빼앗긴다. 고리대금업 (적정이윤 이상의 이자를 갈취하는 것) 은 이 체계의 잘못된 본질에 주되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부채 재앙이 가난한 국가를 더 큰 빈곤으로, 탈출의 여지 없는 의존성으로 이끌고 있음을 상기한다. 이곳 미국에서는 풍요의 한복판에서 굶주리고 집이 없으며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다.

● **노동에 있어** 인간의 노동의 이유는 더 이상 인간의 필요가 아니다. 그 대신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이자 “진보”라 불리는 억제되지 않는 기술의 발전이 지배한다. 일자리는 “하이테크” 산업에, 전쟁 산업에, 낭비되는 물건들의 소비 사회에 집중된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인간의 복리에 무관한 일에 갇힌다. 나아가, 일자리가 점점 더 특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그들 노동의 산물로 부터 소외된다. 심지어 농업에 있어서도, 농산업이 농업을 대체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 제약들은 포악함이 넘쳐 흐르고, 자연의 법칙에 대한 무시는 이 행성을 위협하고 있다.

● **정치에 있어**, 국가는 삶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의 권력은 기술의 성장과 손잡고 급성장했다. 이로써 구체적인 정책이 구성될 때, 군사적, 과학적, 기업적이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단지 국가 기구의 크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관료적 정부를 향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국가는 비인간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관료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단지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책임 체계를 만들어내 효과적인 정치 토론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 **도덕에있어**, 사람사이의관계는인간에대한왜곡된이미지로인해오염되었다. 계급, 인종, 성별은사회안에서개인의가치와위치를결정한다. 이는압제를촉진하는구조를만들어낸다. 자본주의는사용자와노동자사이에부외그통제권을둔대리전을조장함으로써이분할을심화한다. “생산적”이지않은자는추방되고, 국가기관에의해“절차화”된다. 영적결핍은만연하며, 고립, 광기, 성적문란, 폭력으로현현한다.

● **군비경쟁**은우리시대의시대정신이자방향성에대한명확한신호를보낸다. 군비경쟁은파괴의수단을늘렸고, 절멸에대한공포를확장하였으며, 기본적인생존권을부정한다. 군비경쟁과빈곤에는직접적인연관이있다. “군비경쟁은인류의극심한역병이며가난한사람들에게견딜수없는상처를입히는것이다.”(제 2 차바티칸공의회)

* * *

우리가주변에서, 혹은우리안에서바라보게되는것과는반대로성토마스아퀴나스의공동선에관한교리는, 하느님의주관하심아래각구성원의개별선이전체의공동선으로뭉치는사회에대한전망을제시한다.

이를위하여우리는아래와같은것을지지한다.

● **인격주의 Personalism**. 모든사람의자유와존엄을기반으로하고, 모든형이상학과도덕의목적이되는철학으로써의인격주의. 이러한지혜를따름으로써우리는자기중심적개인주의 self-centered individualism 를벗어나타인의선으로향할수있다. 이것은변화하는조건에대하여개인책임을지고, 국가나다른기구가비개인적인“자비”를제공할것을추구하지않는것으로부터이루어진다. 우리는교회가이철학으로써새로워지고, 피터모린이가르친부드러운인격주의를통해교회의부르심에서멀어진기분을느끼는사람들을사랑으로맞이할날이오기를기도한다.

● **탈중앙적사회**. 이러한사회는현재의큰정부, 산업, 교육, 보건, 농업에대응한다. 우리는가족농장, 지역적토지신탁, 소규모공장에대한노동자의소유와경영, 자경자급농장, 식량·주거등의협동조합등을지지한다. 우리는화폐를다시금교환의수단만으로돌려놓고, 인간이더이상자산이아니게끔하는모든시도를지지한다.

● **“녹색혁명”**. 이를테면반反사유재산적코뮌주의, 농업을 통한자급자족, 수공업과기술의전용, 사람들이스스로의노동의과실에만의존하는급진적으로새로운사회등을말한다. 이로써상호성과갈등해결에있어서의공정함과함께, 우리노동의정확한의미를재발견하고, 토지와연결을재구할수있을것이다.

* * *

우리는이반드시필요한개인적, 사회적변혁이예수님께서당신의희생적사랑을통해보여주신방법으로이루어져야함을믿는다. 그리스도를우리의예시로삼아, 기도를통해, 그의성육신과성혈과의교감을통해, 우리는다음의실천들을추구한다.

● **비폭력.** “평화를위하여일하는사람은행복하다. 그들은하느님의아들이될것이다.”(마태오의복음서 5,9) 오직비폭력적행동만이인격주의적혁명을이룰수있다. 그렇기에우리는어떠한이유로건간에인간의생명을앗아가는것에반대하며, 모든압제를신성모독으로받아들인다. 예수께서는우리에게대리에게고통을주느니스스로고통받으라고가르치셨다. 그리고예수께서는우리에게기도와단식, 그리고악퓌에의비협조를통해폭력과싸우라요청하셨다. 전쟁을위한납세를거부하고, 징집을거부하고, 불공정한법률에응하는것을거부하자. 비폭력파업과보이콧에, 시위와농성에참여하자. 지배의체계에대한, 기업의재정에대한, 고리대금업에대한지지를철회하자. 이모든것이평화를확립하기위한방법이될것이다.

● **자비로운행위** (마태오의복음서 25,31-46 에서와같이) 는복음의요체이며, “우리형제자매중가장보잘것없는이”들에대해우리가하여야할일들을명확히말해준다. 현대의집¹은사랑의행동을하는방법을배우는중심이된다. 이곳에서가난한자들은, 원래그들의것이여야할것을받게된다. 이를테면우리옷장에있는두번째코트나, 우리집의남는방이나, 우리식탁의남는자리같은것말이다. 우리가지금바로필요하지않는모든것을그것이아예없는이들이갖게하는것이정의로움이다.

● **육체노동.** 우리사회는육체노동의존엄성과귀함을부정한다. “육체노동은협동을촉발하고장벽을극복하며자매애와형제애를건설함은물론, 우리가손과정신을사용하는것처럼우리육체를사용할수있게한다.”(도로시데이) 베네딕도회의표어인“기도하고일하라 Ora et Labora”는우리에게인간의노동은세상의교회와하느님의영광을위한선물이라는것을상기시킨다.

● **자발적가난.** 우리는또한자발적가난을추구한다. “가난의신비함은가난을공유하는것에있다. 타인에게우리의것을나누어줌으로써가난해진다면, 우리는사랑을더욱알게되고, 더욱믿게된다.”(도로시데이) 스스로가난을선택하지않은이들과우리의것을자유롭게나눔으로써자발적으로가난해질때, 우리는하느님의사랑에자신을내맡길수있는은총을바라게될것이다. 이것이우리가교회의“가난한이웃에대한우선적선택 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²을육화 (肉化, incarnate) 하는길에이르게할것이다.

* * *

우리는이목적을가지고실패를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 희생과고통이야말로그리스도인의삶의일부이기때문이다. 세상이정하듯하는성공여부는판단의최종기준이아니다. 가장중요한것은예수그리스도의사랑이고, 어떻게예수그리스도의진리를살아낼것인가이다.

¹ 역자주: 현대의집 house of hospitality 은로마가톨릭노동자운동에서주관하는지역기반조직으로, 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집과음식, 의복등을제공하는장소로기능하였다.

² 역자주 - 빈자우대선택 preferential option for poor 은 20 세기후반등장한카톨릭사회교리의원칙중하나로써, 가난하고힘없는이들의행복을위한선택을해야한다는것이다.